

"내가 중국 경제를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: 왜 중국의 단기적 악재가 장기적 호재일까"

- 연사 **헤니 센더(Henny Sender)**
영국 파이낸셜타임즈(FT) 수석 칼럼니스트
(국제금융 담당)
- 일시 **2019년 2월 19일(화) 오전 07:30-09:00**
- 장소 **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**
- 언어 한국어-영어 동시통역
- 참석여부 **2019년 2월 15일(금) 오후 5시까지**



세계경제연구원(이사장: 전광우)은 FT 수석 칼럼니스트 헤니 센더 박사를 초청하여 특별 조찬강연을 개최합니다. 센더 박사는 중국의 부채위기(Debt Crisis)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가가치사슬(Value Added Chain)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기회 등 포괄적인 현안 이슈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참 석 신 청 서

2019년 2월 19일(화) 오전 07:30-09: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Henny Sender 박사 초청 특별강연 참석을 통보합니다.

성 명 _____

직 장 명 _____

부서 및 직위 _____

연 락 처 전화 _____ Fax _____

이메일 _____

- 회원여부/참가비(조찬포함) :
- 회원
 - 법인회원 () - 5인까지 무료
 - 개인회원 () - 10,000원
 - 비회원 () - 50,000원
 - 언론계 인사 및 학생 () - 무료

(입금구좌) 신한은행 : 140-003-032496 (예금주: 세계경제연구원)

참석신청: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별첨 참가신청서를 **2월 15일(금) 오후 5시까지** 전화(02-551-3334), 팩스(02-551-3339) 또는 e-mail(igenet@igenet.com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계경제연구원 : (전화) 02-551-3334